## "의대교육 정상화 하고 윤석열표 의료개악 중단하라"

'의료정상화 전국 의사궐기대회' 광주·전남의사협회 서울 집회 참석 졸속 강행 의대 정원 철회・사과 요구

광주·전남지역 의대생과 의사 800여명이 20일 서울에서 열린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 의사궐기 대회'에 참석해 정부의 의료개혁 중단을 촉구했다.

6·3 조기대선을 앞두고 '의대교육 정상화'와 '윤 석열표 의료개악 중단'을 요구하기 위해 서울 도심 집회에 참석한 것이다.

20일 광주시·전남도의사협의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숭례문 일대에서 전국의사궐기대획 가 열렸다.

이날 광주·전남 의대생을 비롯한 전공의, 광주시 ·전남도의사협의회 임원 등 총 800여명이 버스를 대절해 서울 집회에 참석했다. 전국 의사협회 측은 이날 집회에 약 2만 5000명이 참석한 것으로 추산

이날 의사들과 의대생들은 의료계와 논의 없이 졸속으로 강행된 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한 사과와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최정섭 광주시의사협회장 겸 광역시도 의사협의 회장도 이날 집회에 참석해 연대사를 통해 같은 의

최 회장은 "오늘 우리는 의료의 본질이 훼손되고

미래가 무너지는 의료농단에 침묵할 수 없어 이 자 리에 모였다"면서 "지난 14개월간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증원 정책으로 대한민국 의료의 최전선에서 희 생하며 묵묵히 의료현장을 지켜왔던 전공의들은 현 장에서 밀려났고, 미래의 의료를 책임져야할 의대 생들은 강의실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호소했다.

이어 최회장은 "이제 대한민국은 새로운 대선국 면"이라면서 "정치권에서 의료 현장 전문가를 무시 한 선거용 포퓰리즘에 따른 근시안적 의료정책은 사라져야 한다. 함께 의료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나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정부는 과오를 인정 하고 책임 있는 사과와 수습책을 제시하라"며 "소위 의료개혁 정책을 전면 재논의해야 한다. 의료를 파 괴한 정권은 결자해지의 책임을 다하라"고 주장했

박단 의협 부회장 겸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 위원장은 "국민의 생명을 정말로 위한다면 임기가 끝날 때까지 적극적으로 사태를 해결하라"며 "우리 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느냐. 젊은 의사와 학생들 의 목소리를 한 번 더 들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 다.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장도 "이제는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라며 "보건복 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은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윤정 한국의대교수협의회 회장 역시 "교육 여



20일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 세종대로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연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 참가자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과 의료개혁특별위원 회 운영 등을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광주시·전남도의사협의회 제공〉

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대 신설을 추진하 는 것은 환자를 살리지 못하는 의사 '가짜 의료인' 을 양산하는 길"이라며 "모든 의료 개혁 정책은 질 높은 교육을 담보할 수 있을 때만 의미가 있다. 의

사를 때리면 지지율이 오른다는 식의 포퓰리즘 정 치는 결국 국민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낳는다"고 비

정부가 지난 17일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렸음에도 조기대선을 앞두 고 대선 후보들에게 추가적인 압박 차원에서 집회 를 강행 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양부남 국회의원 "비상계엄 등 20대 대통령 기록물 훼손 우려"

"대통령기록관 아닌 대통령 비서실이 이관 작업 주체" 지적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사진) 국회의 원은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제20대 대통령기록물'이관 작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권한대 행기관에 대한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의 주체가 대 통령기록관이 아닌 대통령비서실로 파악돼 계엄 문 건 등 주요 기록물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이날 광주일보와 인터뷰를 통해 "행정 안전부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 이관을 위한 현장 점검 대상에 오른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은 모두 30곳이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대통령기록관이 지난 9~16일 현장 점검을 마쳤다고 밝힌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은 28곳이었

는데, 이보다 2개 기관이 더 많은 것이다. 당시 점검에서 국무총리실과기획재정부등 대통령권한대행기관은제외 됐기 때문이다.

양 의원은 "대통령기록물 법이규정한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 28곳의 이관 작업은 대통령기록관이 담당하지만, 총리실과 기재부는 대통령비서실이 맡아 진행한다 는 의미다"면서 "이는 점검을 받아야 하는 기관이 동시에 점검을 진행하는 기관이 된 모순적인 상황

또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난 4일 대통령기록 물 이관작업을 위해 대통령기록관 내에 설치된 '이 관추진단'에도 대통령비서실 파견자 4명이 포함됐 다"면서 "학계는 권한대행기관의 기록물 이관을 대 통령비서실이 맡기로 결정됐더라도 대통령기록관 이 이관 작업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 했다"고 덧붙였다.

양 의원은 "이번 대통령기록물에는 '12·3 비상계 엄 사태'와 관련한 증거가 다수 담겨있을 것이며, 이 중 일부는 권한대행 체제에서 생산됐을 가능성 이 크다"며 "기록물의 훼손이나 폐기를 막기 위해서 도 '셀프 점검'이 아닌 공정하고 중립적인 이관 대 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민주주의가 다시 새롭게 부활하리라"

광주·전남 성당·교회. 부활절 맞아 미사·예배 열려

20일 부활절을 맞아 광주·전남지역 성당과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그의미 를 되새기는 미사, 예배가 열렸다.

광주시 광산구 신창동 성안교회(담임목사 박홍석)에서는 오전 10시 30분 전 교인이 참 석한 가운데 부활절 세대통합예배가 진행됐 다.

박 목사는 '누구를 찾느냐'를 주제로 한 설 교에서 "이 땅의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이 절망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라며 "우리가 찾아야 할 대상은 다시 살아나셔서 감동과 용기를 주신 부활의 예수님"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나약할지라도 예 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와 깊은 음성으로 불러 주신다"며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음과 절망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셨기에 우리는 아

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삶을 지향하며 살아야 한다"고

한편 천주교 광주대교구(교구장 옥현진)는 지난 19일 오후 8시 옥현진 대주교 주레로 임 동주교좌성당에서 주님 부활 대축일 파스카 성 야 미사를 봉헌했다.

옥현진 대주교는 이에 앞서 지난 17일 발표 한 '2025년 부활메시지'에서 "불신과 의혹의 바다를 건너 믿음과 사랑의 땅으로 나아가자"

또한 "지난 몇 달 동안 이 땅의 의식 있는 다 수의 국민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불면의 밤을 보냈다"며 "어느 시인의 말처럼 '잔인한 사월'이 지나면 대한국민의 마음에 민 주주의가 다시 살아나 새롭게 부활하리라 믿는 다"고 덧붙였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어린이 핫플' 광주시 어린이안전체험관 인기

광주시가 운영하는 어린이안전체험관 이용객이 전년동기 대비 2배 가까이 급증했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어린 이안전체험관을 찾은 방문객은 140개 단체에 총 4283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2201명) 보다 194% 증가한 수치다.

광주시는 인기 상승 요인으로 지역아동센터·광

주시교육청·아동 관련 부서·기관의 홍보 강화, 만 족도 조사 시행, '열린 청사'를 활용한 안전 그림그 리기 프로그램 운영, 1회 체험인원 확대(20→30 명) 등의 효과로 분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어린이안전체험관이 어린이들 사이에 서 '핫플레이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이 광주 시의 설명이다.

특히 예년에는 개학 기간 이용객이 다소 감소하 는 추세였으나, 올해는 4월 현재까지도 예약 및 체 험 인원이 꾸준히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

지난 2015년 11월 문을 연 광주시 어린이안전체 험관은 4~12세 사이의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저학 년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지하철체험, 구조요청 신고, 지진대피요령, 승강기 안전체험 등 13종의 체험형 교육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광주일보 73년 - 유튜브 2천만뷰 돌파



#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7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 가 직접 관리합니다.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화수
- 분양대금 연체 등,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 계약서 입금 내역 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010-2785-0073 직통전화 062)521-4109

#### 합병공고 및 주권제출공고

주식회사 성보건설(갑)과 자드시스템 주식회사(을)는 2025. 4. 18. 각 주주서면결의로 '갑"은"을"을 합병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을"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에 수반하여 주식의 병합 및 분할이 필요하오니, 된 회사의 구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분 및 이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 익잌부터 1개월 이내에 본 회사에 구주권을 제출 및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와 이에 공고함.

2025년 4월 21일 "갑" **주식회사 성보건설** 광주광역시 북구 서하로 207(오치동)

사내이사 장종옥

"을" **자드시스템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북구 서하로 207(오치동) 사내이사 김 명 희

####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족 .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기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 분묘 소재지 : 전남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62-8(산28-1) 개작사유 : 토지 개박

3.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 취득 후 개장

.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예 안치장소 : 전남 여수시 소라면 봉두리 산190-1 (추모의 집) (4) 안치기간 : 개장 후 안치일로부터 10년 . 공고기간 : 최초 공고한날로부터 3개월 이상 6. 신고처및공고인 - 정동해 010-7747-9258 - 정주아 010-3625-7548 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고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sup>2</sup>비하여 상기 신고 처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사업 구간 내에 공사 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중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확인이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같음

2025년 4월 21일

### ② 光则日報

·화 정 369-1625

"을" **주식회사 동아기술공사**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충의로 247 대표이사 김 찬 정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라와 이에 공고함.

"갑" **주식회사 퍼스트이앤씨** 

(대의동) 사내이사 김 지 연

•동 광 266-1920 •문 흥 266-1960 •북광주 525-3761 •신 안 222-8171 •양 산 571-7658 •오 치 266-7601 •용 봉433-1503 •우 산433-1503

분할합병공고 (채권자 이의 및 주권제출 공고)

동아기술공시(이하 "을")는 2025년 04월 17일 개최된 각

사업부분을 분합하여 그 분합된 부분을 "을"에게

분할합병하고 양 회사는 존속하며, "갑"의 분할된 부분의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기도

결의하였으므로 이 분합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 익일부터 1개월 내에 관계 회사로 이의를

제출하시기 비라며, 또한 각 회사의 주주는 해당 회사에

2025년 4월 21일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196번길 31-6, 3층

권리의무는 "을"이 승계하고 상법 제530조의 9 제3항에 의거하여 출자재산(분할되어 승계되는 재산) 이외의

주식회사 퍼스트이앤씨(이하 "갑"이라 함)와 주식회사

·남 광673-6836 ·동 명222-9054 ·동 부225-6001 ·중 앙222-9054 ·충 장222-8171

·남 부673-6836 ·백 운651-1833 ·봉 선673-6836 •송 하675-6605 •진 월671-7276

·광 천 382-5788 ·상 무 372-2352 ·서광주 369-1625 ·운 천376-7153 ·치 평376-6511 ·풍 암603-0311

·운 남952-1687 ·월 곡959-1920 ·첨 단973-2900 광산구 ·하 남 955-0451 ·광 산 944-0444

##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② 光则日報

ᆒᆉ

광고문의 227-9600 신문구독 220-0551

예향구독 220-0550